## 김선형 18점·헤인즈 20점···SK, 전자랜드 꺾고 홈 8연승 🖽

2014년 12월 5·6일 주말판 sportsdonga.com 20판



하석주-노상래 감독 아름다운 바통 터치



# 'FA투수 풍년' 한화 神의 한 수

권혁·송은범·배영수 영입 마운드 수혈 대성공…김성근 감독 '리빌딩 프로젝트' 탄력



한화가 일주일 새 87억5000만원을 들여 투수 권혁과 송은범, 배영수(왼쪽부터)를 나란히 영입했다. 최대어를 잡지는 못했지만 알짜배기 투수들을 데려오면서 마운드 보강에 힘을 쏟았다. 신임 김성근 감독과 새롭게 수혈된 선수들이 꾸밀 내년 한화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투수 3명 꼭 잡아 달라"김 감독 요청 구단도 PS경험있는 알짜 베테랑 영입 꼴찌 한화의 가을야구 벌써부터 관심

"한화는 내년 프로야구판을 흔들 다크호스다. 한화가 일주일 새 총 87억5000만원을 풀었다. 권혁 4년 32억원, 송은범 4년 34억원, 배영수 3년 21억 5000만원. FA(프리에이전트) 투수 세 명을 영입하기 위 해 지갑을 활짝 열었다. 최대어는 잡지 못했지만 알뜰한 '실속파 쇼핑'을 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겨울에 이어 올 해도 어느덧 스토브리그의 '큰 손'으로 떠오른 한화다. 대표적인 짠돌이 구단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예전의 한 화는 온 데 간 데 없다. 2년 사이 다섯 명의 외부 FA를 영입한 한화. 과연 새로운 강자로 도약할 수 있을까.

#### ●외부 FA 세 자리 모두 알짜배기 투수로 채웠다

각 구단은 외부 FA를 세 명까지 영입할 수 있게 됐다. 한 화는 그 권리를 최대한 누렸다. 삼성 출신의 좌완 불폔 권 애제자였던 송은범을 불러 들였다. 삼성의 프랜차이즈 과 송은범, 배영수는 모두 여러 차례 포스트시즌 마운드 스타 이미지가 강했던 우완 배영수도 공들여 영입했다. 숙원과도 같았던 마운드 보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물론 지난해에도 한화는 외부 FA 영입에 큰 돈을 들 였다.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인 정근우와 이용규에게 4년간 각각 70억원과 67억원을 안겼다. 탈꼴찌를 위해 의욕을 불태웠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투수력은 보강하 지 못했다. 또 다시 최하위. 그 교훈을 이번 FA 시장에 서는 잊지 않았다. 김 감독이 구단에 "투수 세 명을 꼭 잡아 달라"고 요청했고, 구단도 최선을 다했다. 시장을 뒤흔든 '최대어'들과는 계약하지 못했지만, 한 명을 잡 을 돈으로 알짜배기 FA 세 명을 데려오면서 선발과 불 펜을 두루 채웠다.

#### ●가을잔치 베테랑인 투수 셋 영입으로 경험과 자극 수혈

일거양득이다. 내년 시즌부터 프로야구는 10개 구단ㆍ 올해는 총 19명의 선수가 FA를 신청했다. 그 덕분에 144경기 체제로 치러진다. 마운드의 양적 보강이 반드 시 필요했다. 안 그래도 한화 마운드는 지난해까지 부족 한 자원 때문에 과부하에 허덕였다. 30대 베테랑 투수

혁을 발 빠르게 낚아챈 데 이어, SK 시절 김성근 감독의 세 명의 영입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무엇보다 권혁 에 올랐던 투수들이다. 국가대표까지 경험했다. 최근 들 어 나란히 성적이 하향 곡선을 그렸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존의 한화 선수들에게 경험과 자극을 수혈하기에는 충분하다. '투수 조련사'로 잘 알려진 김성근 감독과 만 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 ●한화의 가장 큰 전력보강은 감독?

물론 올 겨울 한화의 가장 큰 전력 보강은 따로 있다. 김성근 감독이다. 한화는 김응룡 전임 감독의 2년 임기 가 끝나자마자 김성근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영입했다. 3년 총액 20억원(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을 안겼 다. 김 감독은 총 다섯 개의 프로 구단을 지휘하는 동안, 무너진 팀을 재건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은 인물. 이미 김성근표 리빌딩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역대 단일리그 체제에서 전년도 최하위 팀이 이듬해 포 스트시즌에 진출한 경우는 총 여섯 번뿐. 한화가 과연 그 일곱 번째 사례를 추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을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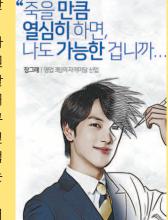
#### 주말기획 | 우리는 왜 '미생'에 열광하는가?



## 누구나 장그래·오차장 그래도 우린 '완생'을 꿈꾼다

정글같은 직장 '미생들의 삶' 진한 공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지만 "죽을 만큼 거부할 수 없는 '환상곡'이다. 케이블채널 tvN 금토드라마 '미생'(극본 정윤정·연출 김원 석)은 집요하리만치 직장생활 이라는 주제만 파고드는데도 대 중과 깊이 소통하고 있다. 너무 현실적이라 오히려 외면하고 싶 은 '밥벌이'의 이야기가 이처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보기 드문 풍경이다.



그 핵심은 대기업인 원 인터 내셔널의 계약직 사원 장그래(임시완)와 신념 강한 리더 오차 장(이성민)이 만들어가는 하모니다. 드라마는 이들을 통해 정 글과도 같은 직장 안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을 쉼 없이 풀어낸 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린 직장인들이 집에 와 TV를 켜고 '미생'을 찾아보는 이유다. 직장생활의 '재생'이 아닌, 지친 마 음을 달래주는 '안정제'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미생'을 향해 유독 뜨거운 지지를 보내는 이들은 물론 '직장 경험자들'이다. 현재 회사원이거나 취업을 앞둔 준비생. 이미 퇴 직한 이들을 망라한다. '미생'이 이들을 빠르게 흡수하는 데는 보는 사람마다 각자 위치와 상황에 맞춤한 등장인물들이 포진한 덕분이다. 계약직 사원 장그래, 워커홀릭이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를 오차장, 고속승진할 줄로만 알았던 김부장(김종수)의 퇴직 등은 월급통장에 찍히는 '액수'와 관계없이 세상을 사는 누구나 '미생'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8월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대표되는 국내 비정규 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32.4%다. 정규직 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OECD 회원 국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정규직 집단해고 빈도는 34개국 중 4번째로 잦다. 10년 이상 근속 연수 역시 OECD 평균 36.4%보다 현저히 낮은 18.1%다. 심지어 평 균 퇴직연령 49살. 겉으론 '100세 시대'를 부르짖지만 남은 반평 생은 또 다른 비정규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공감대는 최근 대중문화 콘텐츠의 외연을 넓히고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다룬 영화 '카트'(감독 부지영·제작 명필름)는 블록버스터의 공세를 꿋꿋이 견디며 100만 관객 돌파를 앞뒀다. 주목받는 웹툰 '송곳' 역시 그 맥을 같이한다. 이를 들여다 보는 모두가 '미생'이다. ▶주말기획 '미생' 관련기사 2·3면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운전자보험이에요?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14등급(**5만원**)~1등급(**400만원)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20년 만기 20년 납, 월납, 자가용운전자 기준)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080-220-8800

